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1)

< 2019. 11. 16(토) 09:00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주거혼합정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5점)

<제시문 1>

일반적인 경우 지역공동체의 계층적인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정책은 복지사업, 교육지원,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책당국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서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꾸준히 완화시켜간다면, 빈곤층이 더 많이 열린 기회들을 활용하여 계층이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서 이질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인위적으로 이질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웃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웃 주민들 사이의 접촉이 표면적인 교류를 넘어 우정과 같은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질정보보다는 이익, 가치, 선호, 생활형태 등의 동질성이 필수적이다.

<제시문 2>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상에 입각하여 빈곤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빈곤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중산층 시민들로부터 노동윤리를 배울 수 있고, 개선된 위생습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되어 생산적인 노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빈곤이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사회계층들이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과 상류층은 하층민의 왜곡된 이미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계층은 종종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특히 공업도시에서 노동자 계층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드는 현상은 사회의 전체적인 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빈곤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을 다른 계층들이 사는 곳들로 조금씩 분산시키는 정책은 빈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제시문 3>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관직을 부여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에게는 그 삶을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고, 젊은이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과부와 고아, 불구자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하게 해 주고, 성년 남자에게는 적당한 직분을 주며,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 준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사사로이 자기만 독점하지 않으며,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모두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서로 간의 모략이 있을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이 없어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사회정책들은 이와 같은 ‘대동’의 이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논술시험 (인문 1)

<제시문 4>

중·소도시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대도시권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과 실효성 면에서 낫다는 가정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예컨대, 빈센트 오스트롬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요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일반적 규칙 체계 안에서 서로 적응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다극(多極)적 질서’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런 제안의 문제는 무엇일까? 사실 빈센트 오스트롬의 제안은 ‘티부 가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찰스 티부(C. Tiebout)는 파편화된 대도시 모델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여러 자치구역은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주민은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반대의를 표명’해 자신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지방세와 공공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의 문제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이주를 통해 반대의를 표명을 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쉽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양질의 공교육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재산세라는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것일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양질의 공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빼앗긴다. 또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가난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다극적 자치체제를 통한 계급적 특권과 계급권력의 재생산은 사회적 재생산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계급 전략과 딱 맞아떨어진다.

<제시문 5>

많은 사회정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데 있다. 요즘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주택정책도 비슷한 오류에 빠져있다. 요컨대, 공공임대주택이 특정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그 지역에 붙여지는 오명과 마을의 좋지 않은 평판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정책적 대응을 초래한다. 빈곤층 거주자들의 밀집 현상 및 그 지역이 받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은 소득과 다른 부문의 불평등이라는 더 근본적인 현상의 가시적인 상징일 뿐이다. 소득이나 다른 부문의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정책적 대응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주택단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재구조화 및 그와 연관된 실업, 특히 제조업에서의 실업이다. 이것은 소득 및 서비스 접근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주택단지의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더 치중해야 할 과제는 불평등을 끊임없이 발생·확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다.

<제시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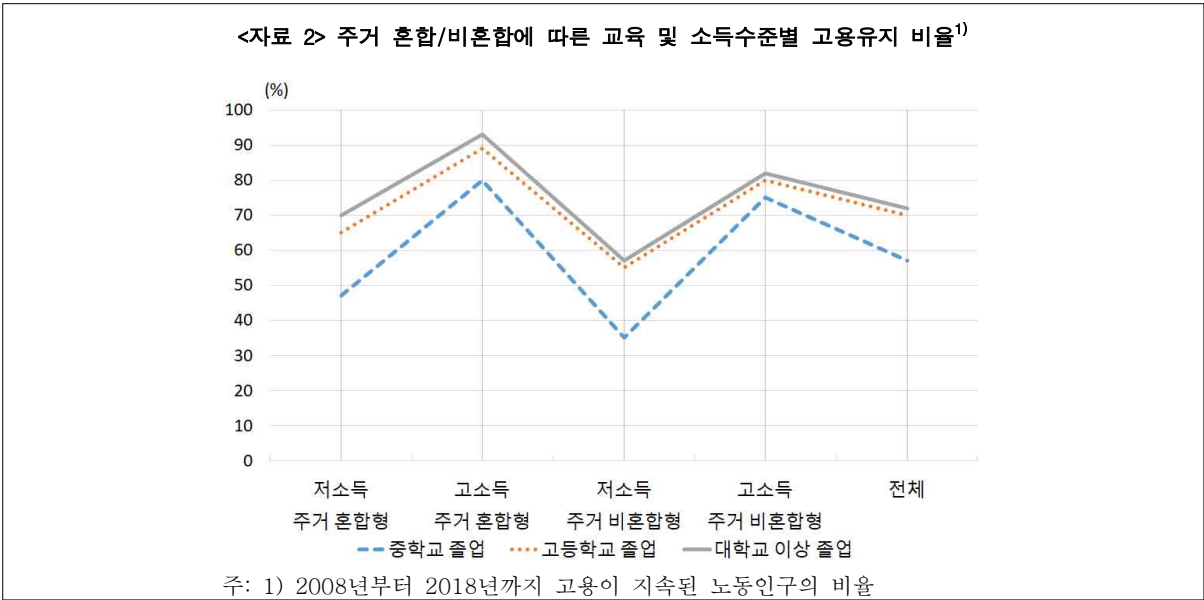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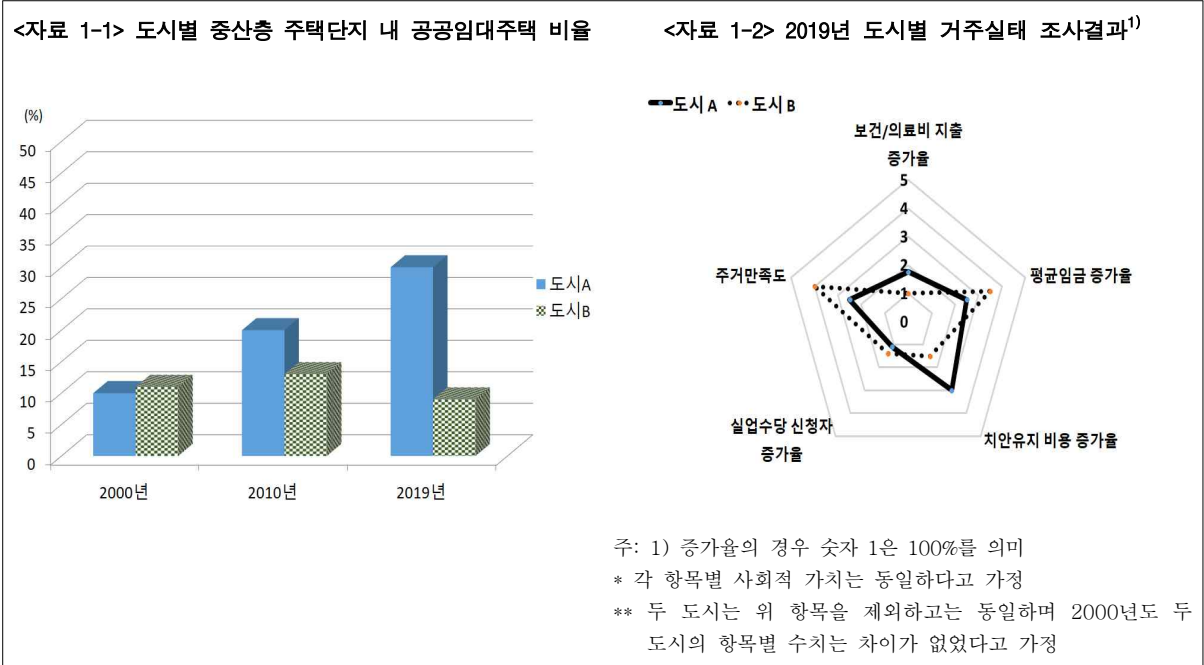
빈곤층을 분산하는 정책은, 정책당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생활 형편이나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면 그 만큼 정책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빈곤층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산다고 해서 그들에게 붙여진 오명이나 낙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동네 전체가 빈곤하고 위험하며 불결한 곳이라는 오명을 얻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 개인적으로 그런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빈곤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어딜 가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 더욱 심한 차별과 냉대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빈곤한 노동자들을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는 거주정책은, 비록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주는커녕 그들의 존엄성만을 훼손할 뿐이다.

<제시문 7>

빈곤의 문화를 지닌 지역의 경제적인 특징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실업과 불완전 고용, 저임금, 잡다한 미숙련 직업, 미성년 노동, 낮은 저축률, 만성적인 금전 부족, 비축 식품의 부재, 전당 잡히기, 고리채 사용 등이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제시해보자면 주거 공간의 부족,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혼한 알코올 중독, 잦은 폭력 사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매질, 아내 구타, 이른 성경험, 강한 권위주의적인 경향 등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구하기 어려운 찰나주의와 어려운 생활 형편이라는 현실 때문에 체념과 숙명론에 쉽게 빠지는 것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우월 정신이 강해 ‘마치스모’, 즉 사나이다운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편으로 여자는 순교자적 희생정신에 익숙해진다. 밀집 생활을 하며 빈곤의 문화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다른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빈곤한 개인들이 가난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하고, 각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35점)



[문제 3] 현재 도시 C의 한 지역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도시당국은 이 단지를 해체하고,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몇 곳에 시세대비 6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산시켜 신규 건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문제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오직 하나만을 논술하시오.(30점)